



본란의 기사는 미국내 통상자문회사인 Manchester Trad社의 통상보고서 및 EC주재 변호사의 보고서를 기재한 것이며 세부사항에 대한 문의는 本會國際部(TEL: 553-0941/7)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EC, 한국산 IC에 대한 반덤핑 조사 가능성

한국산 IC가 EC 반덤핑 조사대상의 차기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으며, 금성, 현대, 삼성 등이 수출한 RAM에 대해 유럽 제조업체들이 제소를 준비해 온 것으로 여겨짐.

일본산 DRAM에 대한 예비 반덤핑 관세는 1990. 5. 27일로부터 2개월간 연장되었음. 예비관세는 EC 집행위에 가격인상(Price Undertaking) 제의를 하지 않은 업체들에만 적용되는 것임.

2. "Thomson" · "Philips", HDTV 合作開發

프랑스의 톰슨사와 네덜란드의 필립스사는 유럽 HDTV 개발 계획을 위해 36억弗 상당의 합작 투자에 동의 했음.

톰슨사는 프랑스 정부의 지원으로 16억 2,000만弗을, 필립스는 19억 8,000만弗을 투자하게 될 이 합작사는 새로운 HDTV 시장에서 일본과 대항키 위한 것임.

이들 유럽 업체들은, 세계적으로 HDTV 규격이 결정되기 전에 좀더 연구가 필요하다는 International Radio Consultative Committee (CCIR)의 결정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본은 자국의 방송사인 NHK의 규격이 채택되기를 희망했었음.

3. Siemens, Thomson 간의 협의

"Siemens"와 SGS-Thomson 사는 반도체 부문에서의 긴밀한 관계를 논의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며 만약 이 협의가 합의되면 필립스도 이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됨.

필립스는 최근 여러 사업부문에서, 실적이 악화되어 왔으며 반도체 부문은 필립스 자체로는 너무 작아 성공하기 힘든 부문으로 판명되었음.

4. EC, 반도체 설계 법적 규제 연장 제안

제3국 원산인 반도체 설계에 대해 EC내의 보호법 연장 제안이 수락되었음.

그러나 동 보호규제는 EC에 대한 제3국들의 호혜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주어질 것임.

이들 제3국들은 다음의 두 부류로 구분되어 짐.

① 일본, 스웨덴, 호주: 무조건적 보호규제 (이들 국가들은 對EC 설계 보호규제를 하고 있음)

② 미국, 스위스 및 기타 EFTA, 그리고 영국 · 프랑스의 해외거점: 1992년말까지 현행 잠정규정의 연장.

보호규제는 무조건적으로 개별 적용되며 개별 기업들에 대한 보호규제는 개별기업의 해당국 정부가 EC 기업들을 취급하는 정도에 따라 차별될 것임.

5. EC, 그리스에 반도체 설계 보호법안
추종 요청

EC 집행위는 그리스에 반도체 설계법 보호에 관해 집행위법을 따르는데 2개월을 허용하는 조건부 옵션을 송부했는데 동기한이 지나도록 협조치 않을시 집행위는 그리스를 유럽 사법 재판소에 제소할 것임.

그리스는 1986년 12월 채택된 EC 지침이 아직 국내법으로 개정되지 않은 유일한 국가임.

EC 집행위는 특히 시장 단일화의 명제 아래 IC 관련 법규를 최우선 지적 소유권 분야 중 하나로 간주함.

6. EC·일본 행정 회담

3년만에 처음으로 일본 및 EC側 행정각료들간의 회담이 개최되었음.

일본은 여러 경제 및 정치적 현안들에 대해 EC와의 관계 강화를 바라는 반면 EC는 對日本 수출증진 협정과 유럽 기업들의 對일본 시장진출 확대를 위해 왔음. 이 협상은 무역현안에 관한 실무진을 구성하여 현재 상호교역의 실태와 시장진출의 문제점 등의 개선장치와 공동목표를 설정하는데 동의, 상호협력을 재개케 되었음.

7. Monopolies and Mergers Commission("MMC"), Dixons/Kingfisher 合併 報告書 發表

영국의 MMC는 제안된 Dixons/Kingfisher 합병에 대한 결정을 발표.

MMC는 영국 전기제품 소매시장이 연간 약 60억£의 규모임을 밝힘.

"Dixon/Currys"은 17%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는 가장 큰 소매상이며, "Kingfisher"의 자회사인 "Comet"은 거의 9%가 넘는 시장

점유율로 2위를 차지하고 있음.

MMC는 영국의 전기제품 소매부문에서 1989년 모든 소비자 구매의 31%가 주요 합병기업들에 의해 행해짐을 파악.

또한 MMC는 영국내의 전기제품 가격은 Dixon과 Comet의 가격전략과 경쟁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따라서 Dixons/Currys와 Comet의 합병은 영국내 시장경쟁의 상당한 요인이 줄게 되므로 이들간 합병을 허용치 말아야함을 결정했음.

이에 대해 그동안 "Kingfisher"측의 무모한 흡수 방안을 거부해 온 "Dixons"은 지지를 표시.

8. 일본의 對EC 투자

일본의 對EC 투자가 1990년대에도 첨단 기술분야와 R&D 그리고 지역적 공급을 담당할 플랜트 등을 중심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은 주로 서독, 프랑스에 집중되며 상대적으로 영국은 저조할 것으로 보이며, 기업 흡수, 합병 또한 대륙쪽에서의 일본 기업들의 역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행할 것임.

- 1989년 일본의 對EC 직접투자

국 가	투자액(백만弗)	비 중
영 국	6,670	46.2%
네 델 란드	3,390	23.5%
서 독	1,270	8.8%
프 랑 스	1,040	7.2%
룩셈부르크	1,040	7.2%
이 태 리	350	2.4%
스 페 인	350	2.4%
벨 지 음	270	1.9%
아 일 랜드	60	0.4%

9. 금성, 마쓰시타, CDP 반덤핑 관세 철회 요청

금성과 마쓰시타는 유럽 사법 재판소에 한국 및 일본산 CDP(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에 대해 확정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이사회 규정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했음.

이와 관련해 마쓰시타는 이사회가 자사 제품의 정상가격(Normal Value)을 자사와 관련된 판매회사에게 자사와 무관한 딜러들이 지불한 가격에 기초해 결정했음을 주장했다. 이들 관련된 판매회사들은 판매부서로서의 기능을 하지 않음을 제기.

금성 또한 집행위의 정상가격 산정 방법에 대해 이의 제기를 했는데 정상가격이 국내시장에 소량 판매된 모델들의 국내 가격에 기초해 설정되었으며, 이들은 정상적인 거래 과정이 아니거나, 적절한 비교가 될 수 없는 판매분임을 주장했다. 그러므로 5% 기준보다는 구성가격이 사용되어야 함.

반덤핑 Case의 경우 전과정은 2년 이상 지속됨.

10. EC, 데이터 베이스 보호지침 초안

EC 집행위 부의장은 집행위는 1990년말 이전 Copyright에 의한 데이터 베이스 보호와 관련한 국가간 규정의 일치에 대한 지침 초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것임을 언급.

11. EC 뉴스단신

1) Visual Display Units("VDUs")를 사용하는 근로자를 위한 엄격한 EC 안전 조항이 채택되었음.

1993년 효력을 갖게될 새로운 요구사항은 VDUs와 Keyboards가 별도로 분리되어 제작되어야 하며 완전히 조절 가능한 것이어야함을 요구하고 있음.

2) "Sony"사는 스페인에 TV 공장 설립을 위해 100억엔을 투자할 계획.

3) "Philips"사는 자사의 British Defence인

"MEL"을 프랑스의 Thomson-CS에 조만간 매각할 것으로 알려졌다.

Thomson-CSF는 이미 필립스의 European Defence 지분의 대부분을 인수했음.

4) EC 집행위의 한 서면 질의서에서, 유럽 의회의 한 회원이 가격 통제 카르텔이 영국의 콤팩트 디스크의 가격을 통제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회를 했음.

집행위는 이에 대해 증거는 없으나 만약 증거가 있으면 조사할 것임을 답변.

5) RETRA는 유럽 전역의 전기제품 소매업자들의 이익보호와 내수용 제품, 특히 Audio-Vide 제품의 유통업자의 이익을 대표할 유럽 연맹 창설에 개입해 왔음.

6) Thomson과 필립스는 유럽에서 33inch TV용 튜브를 각각 생산할 계획임.

추가로 통상社は 올해말 이전까지 16:9 비율의 36인치 튜브도 생산 계획임.

7) 1990. 5. 19 EC 통상장관들의 비공식 회의에 이어 모든 주요 분야에 있어 우르과이라운드 협상에서 훌륭한 성과가 있을 것임을 확인하는 발표가 있었음.

8) 도요타 자동차(Toyoto Motor)는 체코에 자동차 공장 투자계획을 고려중에 있음.

이러한 것은 대형 일본업체들이 자유화된 동구국가들에 대한 투자기회를 면밀히 분석하여 EC 시장으로 이들 제품을 수출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9) EC 집행위는 유럽 내에 디지털 무선전화기의 일원화된 도입에 관한 지침을 제안했으며 아울러 추천서 초안을 제출했음.

동제안은 EC 전역에 걸쳐 무선전화기의 일반 주파수대를 설정할 수 있을 것임.

10) 스웨덴 수상은 스웨덴은 EC가 정치적으로 통합시 자국의 중립국 신뢰도를 해칠 수 있어 EC에 가입할 수 없음을 언급했음.

현재로서는 스웨덴이 1993년 이후 EC 회원국의 신청할 가능성은 없어 보임.